

# 國語의 命題內容 表現에 대하여

李 鉉 雨\*

## I

국어는 語尾가 대단히 발달된 언어다. 따라서 국어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語尾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기능이나 그들 語尾들이 이루고 있는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語尾를 다룬 연구 업적이 꾸준히 쌓여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 대한 이해 방식은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종전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어에서 語尾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나 主題(topic)와 解釋(com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한, 語尾는 서술어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解釋의 일부분으로서 다루어져 그 비중에 비하여 엄청나게 초라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나 主題와 解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는 統辭的인 작업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語尾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나 그들이 이루고 있는 체계를 밝혀내는 작업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문장을 이해하는 위의 두 방식에 비해서 문장이 命題(proposition)와 樣相(moda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은 語尾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견해이고 따라서 語尾가 발달된 국어에 적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Fillmore를 비롯한 格文法論者들이 주로 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樣相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樣

---

\* 박사과정

相이라는, 語尾들이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고에서는 문장을 命題와 樣相으로 나누는 것이 국어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命題라는 용어를 命題內容으로 바꾸어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보이고자 한다.

## II

命題內容은 상태(states), 사건(events), 과정(processes), 동작(actions) 등의 상황을 記述해 주는 부분으로서 관찰, 추측, 판단 등 인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해서 樣相은 관찰, 추측, 판단 등 인식이라는 작용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1) 밖에는 눈발이 날리더라.
- (2) 내일은 얼음이 얼겠다.

위의 예문 (1)의 화자는 ‘밖’이라는 공간에 ‘눈발이 날리는’ 상황을 관찰하고 나서 (1)을 발화한 것이다. 여기서 ‘밖에 눈발이 날리는 모습’은 화자의 관찰의 대상이 된 부분으로서 (1) 가운데 처음부터 動詞의 어간까지는 命題內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는 ‘밖에 눈발이 날리는 상황’을 화자가 관찰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고 ‘-라’는 화자가 그러한 관찰을 하였음을 청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더-’와 ‘-라’는 樣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의 화자는 ‘내일’이라는 때에 ‘얼음이 어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2)를 발화한 것이다. (2)에서도 추측의 대상이 되는 ‘내일은 얼음이 얼’은 命題內容이 되고 ‘내일 얼음이 어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겠-’과 그러한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다’는 樣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보아서 국어의 문장에 있어서 動詞의 어간까지가 상황을 記述해 주고 있는 듯하며 따라서 동사의 어간까지가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종결어미는 관찰, 추측, 판단 등의 인식

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서 樣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좀더 언급할 것들이 있다. 使動, 被動의 ‘—이—’, ‘—히—’ 등, 相을 표현하는 ‘—고 있—’, ‘—어 있—’, 또 과거라고 보아 왔던 ‘—았/었—’, 삽입구라고 불러 왔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使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 (3) 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 (4) 철수는 팔을 굽혔다.

(3)은 언니가 ‘동생이 옷을 입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4)는 철수가 ‘팔이 굽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이들 使動 표현들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使動接尾辭까지도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長形使動이라고 해 왔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5) 형이 동생에게 신을 신게 했다.
- (6) 교주는 신도를 죽도록 했다.

(5)는 형이 동생으로 하여금 ‘동생이 신을 신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게 한 것이고 (6)은 교주가 ‘신도가 죽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3), (4)에서 使動接尾辭를 포함하여 동사 어간까지는 관찰, 추측, 판단 등 인식이 개입되지 않는다. 즉 (3)에서 ‘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히’에는 상황만이 들어 있지 ‘동생이 옷을 입은 상황’을 언니나 화자가 인식했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다. (4)의 ‘철수는 팔을 굽히’에서도 철수는 팔을 굽히는 행동에만 참여하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화자가 인식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5), (6)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被動은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 (7)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

(7)에서 순경이 잡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둑에게는 상황의 변화가 생

기게 된다. 즉 순경이 잡는 행동을 끝마치는 순간 도둑은 이를테면 도망치던 상황에서 순경에게 잡혀 있는 상황으로 상황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이 문장은 분명히 도둑이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순경에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자에게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화자는 도둑이 도망치던 상황에서 도둑이 순경에게 잡혀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있었음은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된다. (7)이 인식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면 적어도 두 번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7)은 단 한 번만의 인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도둑이 순경에게 자신이 잡혔다고 생각하거나 화자가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도둑이 순경에게 잡힌 것은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인식이 아닌 상황이 완료됨으로써 도둑은 순경에게 잡혀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被動이 표현하는 것도 命題內容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相을 표현하는 ‘—고 있—’이나 ‘—어 있—은 상황의 시간적인 모습을 표현해 준다.

(8) 아이들이 손짓하고 있다.

(9) 이 꽃에는 나비가 숨어 있다.

(8)은 화자가 아이들의 손짓이 진행 중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아이들이 손짓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나 화자가 아이들이 손짓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는 찾을 수 없다. 아이들이 손짓하는 상황이 어느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9)에서도 역시 나비가 꽃에 숨은 상태로 얼마 동안 있음은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 있—’이나 ‘—어 있—’도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중 ‘—더—’나 ‘—겠—’은 분명히 인식을 보여 준다. ‘—더—’나 ‘—겠—’의 의미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든 자에 ‘—더—’에는 관찰이, ‘—겠—’에는 추측의 의미가 있다.

(10)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더라.

(11)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퍼붓겠다.

(10)을 발화한 화자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모습’을 관찰했어야 하고 (11)을 발화한 화자는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든지 하는 등 주위의 사정을 통해서 ‘소나기가 퍼붓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추측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더—’와 ‘—겠—’은 樣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었—’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만약 ‘—었—’의 기능을 과거로 본다거나 또는 완료나 완결로 본다고 하면 이때의 ‘—었—’은 命題內容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이야기이니까 ‘내일, 오늘, 어제’ 등과 같은 표현에 의해서 命題內容이 記述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 시간이 표현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2) 주사위를 던졌다.

(13) 어제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진 것’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기는 (12)에서의 ‘—었—’이나 (13)에서의 ‘어제’나 똑같다. ‘—었—’의 기능이 완결이나 완료라고 할 경우 ‘—었—’이 상황의 시간적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고 있—’이나 ‘—어 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14)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다.

(14)는 ‘사냥꾼이 노루를 잡는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었—’이 분명히 인식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15)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circ$ 이었읍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15)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circ$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가르쳐 주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인가를 알아 보도록 하는 경우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한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180°인 것이다. 또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 완결되거나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15)에서의 ‘—었—’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과거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었—’은 命題內容이 아닌 樣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서 동사나 형용사가 記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6) 기차가 빨리 달렸다.

(17) 기차는 아주 빠르다.

(16)에서의 ‘빨리’나 (17)에서의 ‘아주’는 각각 ‘기차가 달리는 모습’과 ‘기차가 빠르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16), (17)에서 자신을 제외한 부분이 記述하고 있는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6), (17)이 記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황을 있는 그대로 記述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아주’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느리다’고 하거나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혼자서 ‘빠르다’고 하거나 ‘아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6), (17)은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화가가 관찰한 대로 記述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사는 이와 같이 상황을 그대로 記述해 주는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문장부사는 命題內容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18) a. 틀림없이 여인의 호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b. 다행히 서울 가는 막차가 있었다.

(18a)에서 문장부사 ‘틀림없이’는 ‘여인이 호느끼는 소리가 들린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림없이’는 ‘여인의 호느끼는 소리가 들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화자

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18b)의 ‘다행히’도 상황을 記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가는 막차가 있었던 상황’이 일어난 것이 화자가 생각하기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사가 命題內容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문장부사는 樣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삽입구도 樣相과 관계된다.

- (19) a. 내가 알기로는 서울의 인구는 천만 명이다.  
b. 내 생각으로는 지하철로 가는 것이 좋겠다.

(19a)에서 상황을 記述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삽입구 ‘내가 알기로는’은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하는 상황이 화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b에서도 ‘내 생각으로는’은 ‘지하철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상황이 화자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해 준다. (19a, b)에서의 삽입구 ‘내가 알기로는’이나 ‘내 생각으로는’이 命題內容이 아닌 樣相과 관련되는 것과는 달리, (19a, b)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19’a, b)는 ‘알다’, ‘생각하다’가 상황을 記述해 주는 命題內容에 속함을 보여준다.

- (19’) a. 나는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알고 있다.  
b. 나는 지하철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19’a)는 (19a)가 서울의 인구에 관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자에 관한 상황을 記述하고 있다. 즉 (19’a)는 화자가 서울의 인구에 대해서 천만 명이라고 알고 있다는 상황을 記述하고 있는데 화자가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은 화자의 인식의 대상인 것이다. (19’b)도 화자가 교통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상황을 記述하고 있어 교통편에 관한 상황을 記述하고 있는 (19b)와 다르다.

이상에서 몇 가지 命題內容과 樣相에 관련된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것은 否定의 영향권 안에 들<sup>1)</sup> 樣相에 속하는 것

1) ‘—었—’은 그 기능을 과거나 완결, 완료로 볼 경우 命題內容에 속한다고 했지만 ‘—었—’이 인식의 의미를 가질 경우는 물론이고 과거나 완결, 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었—’이 의미하는 바는 (25a)에서와 같이 否

은 否定의 영향권 밖에 있어서 否定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먼저 命題內容에 속하는 것들이 否定의 영향권 내에 들어 있음을 보기로 한다.

(20)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지 않는다.

위의 (20)에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까지는 否定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은 이들 중 어느 것이 否定의 대상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주어 ‘농부’가 否定이 될 경우 ‘농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부사 ‘열심히’가 否定되면 ‘농부가 쉬엄쉬엄 밭을 간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 ‘밭을’이 否定되면 ‘농부가 열심히 논을 간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동사 ‘갈다’가 否定되는 경우 ‘농부가 열심히 밭을 췌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命題內容 안에 들어가 있는 주어, 부사, 목적어, 동사는 否定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다.

使動·被動의 의미도 否定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음을 다음의 예문 (21), (22)가 보여 주고 있다.

(21)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자기가 입었다.

(22) 사람이 개에게 물리지 않고 개를 물었다.

(21)에서는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히는 使動의 의미가 否定되고 있으며

(22)에서는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被動의 의미가 否定되고 있다.

相을 표현하는 ‘--고 있--’이나 ‘--어 있--’도 역시 命題內容에 속하기 때문에 否定될 수 있다.

(23) 철수는 연필을 쥐고 있지 않고 이미 다 쥐었다.

(24)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야 앉으려 하고 있다.

(23)에서는 ‘--고 있--’이 가지는 進行의 의미가 否定되어서 이미 연필을 쥐는 동작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24)에서는 ‘--어 있--’이 가지는 지속의 의미가 否定되어 학생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있지 않

정의 영향권 밖에 있다.

고 이제서야 앉으려는 동작을 취하려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을 記述하고 있는 命題內容이 否定될 수 있는데 반해서 상황을 인식했음을 보이는 樣相은 否定될 수 없다.

먼저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가 의미하는 바가 否定될 수 없음은 다음의 예문 (25), (2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5) a. 얼음이 얼지 않았다.

b. 얼음이 얼지 않더라.

c. 얼음이 얼지 않겠다.

(26) a. 얼음이 얼지 않았다.

b. 얼음이 얼지 않았니?

위의 예문 (25), (26)에서 否定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가 의미하는 바는 否定되지 않는다. ‘—었—’이 과거, ‘—더—’가 회상, ‘—졌—’이 추측, ‘—다’가 진술, ‘—니’가 의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25), (26)에 否定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a)는 과거, (25b)는 회상, (25c)는 추측, (26a)는 진술, (26b)는 의문인 것이다. 이들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의 의미기능을 다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25), (26)에서 否定素에 의해서 否定되는 것은 ‘얼음이 얼—’이라는 命題內容인 것이다.

문장부사나 삽입구가 의미하는 바도 否定되지 않음을 다음의 예문 (27), (28)이 보여 준다.

(27) a. 틀림없이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b. 다행히 서울 가는 막차가 있지 않았다.

(28) a. 내가 알기로는 서울의 인구는 천만 명이 아니다.

b. 내 생각으로는 지하철로 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27), (28)에서 ‘틀림없이’, ‘다행히’,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으로는’은 否定되지 않고 이들 문장부사나 삽입구의 뒤에 있는 命題內容이 否定된다. 그런데 삽입구가 否定되지 않는 것은 동사 ‘알다’, ‘생각하다’가 否定될 수 있는 것과 차이를 보여 준다.

- (28') a. 나는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알고 있지 않다.  
 b. 나는 지하철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8)과 (28')의 차이는 (28)에서는 삽입구를 제외한 부분이 命題內容에 해당되는데 반해서 (28')에서는 전체가 命題內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2)</sup> 물론 (28)과 (28')의 의미도 같지 않다.

命題內容과 樣相은 이상과 같이 차이를 보여 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意志的 叙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意志的 叙法은 命題內容과 관련되기 때문에 樣相은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없다.

명령, 청유, 약속 등의 意志的 叙法은 평서문, 의문문과 관심을 두는 바가 다르다. 意志的 叙法은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데 반해서 평서문이나 의문문은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상황이 존재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9) a. 내가 눈을 치웠다.  
 b. 내가 눈을 치웠니?  
 c. 눈을 치워라.  
 d. 눈을 치우자.  
 e. 눈을 치우마.

평서문인 (29a)는 '내가 눈을 치운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화자가 인식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문문인 (29b)는 '내가 눈을 치운 상황'의 존재를 청자가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意志的 叙法인 (29c~e)는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눈이 치워진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피하는 경우다. 따라서 意志的 叙法을 발화하는 사람은 두 가지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 상황을 다른 한 상황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하지 않는 상황인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을 원하는 상황인 눈이 치워진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경우는 한 가지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눈이 치워진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물론 눈이 치워진 상황이라고

2) 편의상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는 무시하기로 한다.

하는 것은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29a, b)의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화자는 원하지 않던 상황은 제거되고 원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하지 않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29c~e)의 意志的 叙法의 발화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인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원하는 상황인 눈이 치워진 상황과 함께 두 가지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은 상황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거나 인식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가 쓰일 수 있다. 그렇지만 意志的 叙法은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지 인식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겠-’이 쓰일 수 없다.<sup>3)</sup>

- (30) a. \*눈을 치우{더, 겠}라.  
 b. \*눈을 치우{더, 겠}자.  
 c. \*눈을 치우{더, 겠}마.

使動이나 使動的 의미를 가지는 ‘-게 하-’, ‘-도록 하-’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意志的 叙法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 (31) a. 동생에게 신을 신겨라.  
 b. 동생에게 신을 신기자.  
 c. 동생에게 신을 신기자.  
 (32) a. 동생에게 신을 신게 해라.  
 b. 동생에게 신을 신게 하자.  
 c. 동생에게 신을 신게 하마.  
 (33) a. 동생을 자도록 해라.  
 b. 동생을 자도록 하자.  
 c. 동생을 자도록 하자.

3) ‘-었-’도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없는데 이것은 ‘-었-’이 가지는 의미가 否定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었-’이 樣相에 해당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1)~(33)에서는 ‘동생이 신을 신은 상황’이나 ‘자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使動이나 使動的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있다.

被動도 상황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使動과 같기 때문에 다음 예문 (34)과 같이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있다.

- (34) a. 술래에게 잡혀라.  
 b. 술래에게 잡히자.  
 c. 술래에게 잡히마.

그러나 被動的의 경우는 使動과는 달리 意志的 叙法에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被動的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대해서 意志的 叙法은 동작주가 되는 주어가 적극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35) a. ?감옥에 갇히어라.  
 b. ?감옥에 갇히자.  
 c. ?감옥에 갇히마.

(35)에서 주어인 a의 ‘너’, b의 ‘우리’, c의 ‘나’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인 경찰이나 간수가 감옥으로 자신들을 보내 주어야만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4)와 (35)의 예문들이 문법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주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차가 있기 때문이다. (34)에 있어서 주어들은 자신들이 술래에게 잡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거나 아니면 술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거나 함으로써 ‘술래에게 잡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서 (35)의 주어들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相을 표현하는 ‘—고 있—’이나 ‘—어 있—’도 命題內容에 속하기 때

문에 意志의 叙法에 사용될 수 있다.

- (36) a. 눈을 감고 있어라.  
 b. 눈을 감고 있자.  
 c. 눈을 감고 있으마.  
 (37) a. 조용히 앉아 있어라.  
 b. 조용히 앉아 있자.  
 c. 조용히 앉아 있으마.

意志의 叙法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는 命題內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意志의 叙法에 사용될 수 없다.

- (38) a. \*예빠라.  
 b. \*예쁘자.  
 c. \*예쁘마.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상황은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어느 시점에서나 同質性을 유지한다. 따라서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상황은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어느 시점에서나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 (39) a. 앉아라.  
 b. 앉자.  
 c. 앉으마.

‘앉다’라는 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상황은, 처음은 앉으려는 동작을 시작하려는 모습이고 중간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앉는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끝은 완전히 앉는 동작을 마친 상태로 서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서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 意志의 叙法은 바로 이런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의 여지가 없는 형용사는 意志의 叙法으로 쓰이지 못하고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모습이 다른 동사는 意志의 叙法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도 (40), (41)에서와 같이 상황 변화의 여지가 주어지면 意志의 叙

법에 사용될 수 있다.

- (40) a. 불을 밝히려.  
 b. 불을 밝히자.  
 c. 불을 밝히마.  
 (41) a. 예뻐지어라.  
 b. 예뻐지자.  
 c. 예뻐지마.

(40)은 使動接尾辭에 의하여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어 변화의 여지를 부여받은 경우이고 (41)은 ‘지다’에 의하여 변화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지다’는 ‘예쁘지 않는 상황’에서 ‘예쁜 상황’으로의 변화를 보장해 준다.

意志的 叙法은 결국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을 화자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령, 청유, 약속은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를 달리한다.

- (42) a. 별을 보아라.  
 b. 별을 보자.  
 c. 별을 보마.

(42a)는 명령인데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청자이고 (42b)는 청유인데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사람이고 (42c)는 약속인데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화자이다.

이와 같이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 청유, 약속에 쓰일 경우 차이를 보여준다.

- (43) a. \*우리 별을 보아라.  
 b. 우리 별을 보자.  
 c. 우리는 별을 보마.

명령은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청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어 (43a)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청유와 약속은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화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43b, c)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칭하는 바는 청유와 약속이 다르다. 청유인 (43b)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43b)에서의 '우리'는 청자와 화자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약속에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화자이기 때문에 (43c)에서의 '우리'는 청자가 제외되게 된다.

결국 意志的 叙法은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命題內容에 해당되면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인식과 관련된 樣相에 해당되면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없게 된다. 선어말어미 '—더—'나 '—겠—'이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대로이고 문장부사나 삽입구도 意志的 叙法에 사용될 수 없다.

- (44) a. \*다행히 눈을 치우어라.  
 b. \*다행히 눈을 치우자.  
 c. \*다행히 눈을 치우마.
- (45) a. \* $\left. \begin{array}{l} \text{내가 알기로는} \\ \text{내 생각으로는} \end{array} \right\}$  눈을 치우어라.  
 b. \* $\left. \begin{array}{l} \text{내가 알기로는} \\ \text{내 생각으로는} \end{array} \right\}$  눈을 치우자.  
 c. \* $\left. \begin{array}{l} \text{내가 알기로는} \\ \text{내 생각으로는} \end{array} \right\}$  눈을 치우마.

意志的 叙法은 상황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과 관련있는 문장부사 '다행히'나 삽입구 '내가 알기로는'이나 '내 생각으로는'이 意志的 叙法에 사용되면 (44), (45)와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문장부사나 삽입구는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더라도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46) a. \*다행히 (눈을 치우어라).  
 b. \*다행히 (눈을 치우자).  
 c. \*다행히 (눈을 치우마).

- (47) a. \*{내가 알기로는} (눈을 치우어라).  
           {내 생각으로는}
- b. \*{내가 알기로는} (눈을 치우자).  
           {내 생각으로는}
- c. \*{내가 알기로는} (눈을 치우마).  
           {내 생각으로는}

그러나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것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도 적당한 문맥만 제공된다면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주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 (48) 누가 청소를 할까요?  
 a. 너(가) (청소를 해라).  
 b. 우리(가) (청소를 하자).  
 (49) 누가 청소를 하겠니?  
 내가 (청소를 하마).

(48)은 “누가 청소를 할까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a와 같이 ‘너’ 또는 ‘네가’라고 대답하면 ‘네가 청소를 해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b와 같이 ‘우리’ 또는 ‘우리가’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청소를 하자’라는 청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9)의 “누가 청소를 하겠니?”의 물음에 대해 ‘내가’라고 대답하면 이때는 “내가 청소를 하마”라는 약속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50) 누구를 보낼까요?  
 a. 철수(를) (보내라).  
 b. 철수(를) (보내자).  
 (51) 누구를 보내겠니?  
 철수(를) (보내마).

(50), (51)은 목적어 성분이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52)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a. 빨리 (가라).  
 b. 빨리 (가자).  
 (53) 천천히 가겠니 빨리 가겠니?  
 빨리 (가자).  
 (54) 어디 갈까요?  
 a. 제주도 (가라).  
 b. 제주도 (가자).  
 (55) 어디 가겠니?  
 제주도 (가마).

(52), (53)은 부사 ‘빨리’가, (54), (55)는 장소 표시의 ‘제주도’가 단독으로 쓰여서 문맥에 따라서 명령, 청유, 약속의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接續語尾도 命題內容을 나타내주는 것과 樣相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나 ‘-겠-’ 등 선어말어미가 통합할 수 있는 接續語尾는 樣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 않는 接續語尾는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接續語尾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가’와 ‘-며’를 들 수 있다. 樣相에 해당하는 接續語尾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니’, ‘-지만’을 들 수 있다. 이들 接續語尾는 그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먼저 후행절에 否定素가 있을 경우 ‘-다가’나 ‘-며’에 의한 接續文에서는 선행절까지 否定의 영향권에 드는데 반해서 ‘-니’나 ‘-지만’에 의한 接續文에서는 선행절은 否定의 영향권 밖에 있게 된다.

- (56) a. 칠수는 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b. 영희는 책을 보며 졸지 않았다.  
 (57) a. 비가 오니 나가지 않았다.  
 b. 공부를 잘하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56), (57) 모두 후행절에 否定素를 가지고 있는데 否定의 영향권은

4) 李鉉雨(1986) 참조.

(56)과 (57)이 다르다. (56)에서는 후행절의 否定素가 선행절까지 영향권으로 할 수 있지만 (57)에서는 후행절의 否定素는 후행절에만 영향을 미치지 선행절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56a)에서 철수는 놀지 않고 공부를 했을 수 있으며 (56b)에서는 영희는 책을 보지 않고 음악을 듣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57a, b)에서는 ‘비가 오고 있거나’ 또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외에는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다가’나 ‘-며’에는 인식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니’나 ‘-지만’에는 인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6a)에서 ‘-다가’의 의미를 ‘중단’이라고 한다면 (56a)는 철수가 노는 상황이 중단되고 철수가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지 철수가 노는 상황을 인식한 것이 중단되고 나서 철수가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인식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56b)에서도 ‘-며’의 의미를 ‘同時性’이라고 한다면 (56b)는 영희가 책을 보는 상황과 영희가 조는 상황이 同時에 일어났다는 의미이지 영희가 책을 보는 상황을 인식한 것과 영희가 조는 상황을 인식한 것이 同時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가’와 ‘-며’는 상황과 상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接續語尾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7)에서는 선행절에 인식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57a)에서는 비가 오는 상황과 나가지 않은 상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는 것을 알고 나서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57b)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부사나 삽입구가 선행절에 있을 경우에도 ‘-다가’, ‘-며’와 ‘-니’, ‘-지만’은 차이를 보여 준다.

- (58) a. {다행히 } 철수는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  
       {내가 알기로는}
- b. {다행히 } 영희는 책을 보며 즐겼다.  
       {내가 알기로는}
- (59) a. {다행히 } 비가 오니 나가지 않겠다.  
       {내가 알기로는}
- b. {다행히 } 공부를 잘하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58)에서는 문장부사 ‘다행히’나 삽입구 ‘내가 알기로는’은 선행절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58a)에서 다행한 것은(또는 내가 아는 것은) 철수가 논 것이 아니라 철수가 놀다가 집에 들어간 것이다. (58b)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행한 것은(또는 내가 아는 것은) 영희가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영희가 책을 보며 존 것이다. 그러나 (59)의 ‘다행히’나 ‘내가 알기로는’은 선행절에만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59a)에서 다행인 것(또는 내가 아는 것)은 비가 온 것일 수 있으며 (59b)에서 다행인 것(또는 내가 아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도 역시 ‘-다가’나 ‘-며’는 命題內容에 속하고 ‘-니’나 ‘-지만’은 樣相에 속하기 때문이다.

意志的 叙法과 關係해서도 ‘-다가’, ‘-며’와 ‘-니’, ‘-지만’은 차이를 보여 준다. 선행절만 사용될 경우 ‘-다가’, ‘-며’는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니’, ‘-지만’은 그럴 수 없다.

- (60) 무엇을 하{다가, 며} 학교에 갈까요?  
 a. 노래를 부르{다가, 며} (학교에 가라).  
 b. 노래를 부르{다가, 며} (학교에 가자).  
 (61) 무엇을 하{다가, 며} 학교에 가겠니?  
 노래를 부르{다가, 며} (학교에 가마).

또한 ‘-다가’나 ‘-니’에 의한 접속문에서는 후행절이 意志的 叙法일 경우 선행절도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니’나 ‘-지만’에 의한 접속문에서는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잃을 수 없다.

- (62) a. 노래를 하{다가, 며} 학교에 가라.  
 b. 노래를 하{다가, 며} 학교에 가자.  
 c. 노래를 하{다가, 며} 학교에 가마.  
 (63) a. 노래를 부르{니, 지만} 학교에 가라.  
 b. 노래를 부르{니, 지만} 학교에 가자.  
 c. 노래를 부르{니, 지만} 학교에 가마.

(62)에서는 선행절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도 명령, 청유, 약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63)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것

도 또한 ‘-다가’, ‘-며’가 命題內容에, ‘-니’나 ‘-지만’이 樣相에 속하기 때문이다.

名詞形 語尾 ‘-口’이나 ‘-기’도 상황을 기술하는 命題內容에 속한다. 그래서 선어말어미 ‘-더-’나 ‘-겠-’이 이들 앞에 올 수 없다.

(64) a. \*안개가 끼(더, 겠)口을 알았다.

b. \*안개가 끼(더, 겠)기를 바란다.

‘-口’은 관찰, 판단 등 인식의 대상이 되는 상황<sup>5)</sup>을 記述해 주며 ‘-기’는 意志的 叙法과 같이 상황의 변화에 관련된 것이다.

### III

國語의 문장은 상황을 記述해 주는 命題內容과 이 命題內容이 記述해 주는 상황에 대해 관찰, 추측, 판단 등의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樣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사의 어간까지가 命題內容에 해당되고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는 樣相에 해당된다. 使動, 被動接尾辭는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고 ‘-고 있-’이나 ‘-어 있-’은 상황의 시간적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命題內容과 관련되고 문장부사나 삽입구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생각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樣相과 관련된다.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것은 否定的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樣相에 해당되는 것은 否定的 영향권 밖에 놓이게 된다.

意志的 叙法은 상황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命題內容에 해당되는 것들은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있으나 樣相에 해당되는 것들은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없다. 使動이나 被動接尾辭, ‘-고 있-’이나 ‘-어 있-’은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있지만 선어말어미 ‘-더-’, ‘-겠-’, 문장부사, 삽입구는 意志的 叙法에 쓰일 수 없다. 命題內容에 해

5) 李翹鸞·任洪彬(1983)에서 ‘명사절에 포함되는 것은 행동이거나 사실이거나 過程이거나 狀態 혹은 命題이기 때문에……’라고 한 것도 본고와 解決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되는 주어, 부사, 목적어는 단독으로 쓰여 意志的 叙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문장부사, 삽입구는 그렇지 않다.

接續語尾는 命題內容과 관련된 것도 있고 樣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위의 논의와 일치한다. ‘-다가’와 ‘-며’는 상황과 상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며 ‘-니’, ‘-지만’은 인식과 인식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名詞形 語尾 ‘-口’이나 ‘-기’도 命題內容에 해당된다.

본고는 國語의 命題內容 表現을 樣相과 대비시킴으로써 命題內容 表現이 인식이 아닌 상황과 관련됨을 보여 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각 命題內容 表現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관련되는지 하는 정밀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조동사나 관형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 參 考 文 獻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金京勲(1981), “國語의 樣相 構造에 대하여”, 開新語文研究 1.  
 김영희(1978), “삽입절 (parentheticals)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 3.  
 徐泰龍(1985), “定動詞語尾의 形態論”, 震檀學報 60.  
 손호민(1975), “Retrospection in Korean”, 語學研究 11-1.  
 安明哲(1983), 現代國語의 樣相 研究, 國語研究 56.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李鉉雨(1986), 現代國語의 接續의 樣相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70.  
 이환목(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任洪彬(1982), “先語末 {-더-}와 斷絶의 樣相”, 冠嶽語文研究 7.